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 슬램덩크 OST 주인공,일본 록밴드 '텐피트' '26년 중꺾마'의 표상

더 퍼스트 슬램덩크, '제제로감' 韓·日 히트  
오리콘 주간 디지털 싱글 랭킹 1위 차지해  
'슬램덩크 페스티벌' 기념 내한 라이브 행사

일본 록밴드 '텐피트(10-FEET)'는 밴드 버전 '중꺾마(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의 표상이다.

타쿠마(47·Takuma·다쿠마)(보컬·기타), 코이치(47·Kouchi·고이치)(드럼·코러스), 나오키(45·Naoki)(베이스·보컬)가 교토를 기반으로 뭉친 이 밴드는 최근 한·일 양국에서 신드롬을 일으킨 일본 만화 '슬램덩크'의 극장판 애니메이션 '더 퍼스트 슬램덩크'(감독 이노우에 다케히코)로 재조명되고 있다.

이 애니메이션 엔딩곡 '제제로감'(第ゼロ感·제제로감)을 불렀다. 얼터너티브 록 풍의 곡으로 몽근한 박진감이 일품이다. 특히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중간 부분 등 전체적으로 이번 극장판의 주인공인 송태섭의 서사를 잘 보여준다.

일본에선 지난해 11월 9일 디지털 음원으로 먼저 발매됐는데 지난 2월 1일 '오리콘 주간 디지털 싱글 랭킹'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1997년 결성된 텐피트는 현지 베테랑 록 밴드다. 텐피트가 오리콘 주간 디지털 싱글 랭킹 정상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다.

"록 음악의 상상력"이 어떻게 애니메이션의 영도를 확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이자, '슬램덩크'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인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음악적 현현이 텐피트인 셈이다.

국내 누적 관객 400만명 돌파를 기념해 마련된 '슬램덩크 페스티벌' 기간에 맞춰 텐피트가 지난 5일 서울 용산CGV에서 연 내한

라이브 이벤트엔 '슬램덩크'에 대한 향수가 가득한 40대 아저씨들이 아닌 '슬램덩크'를 새로움으로 맞이하는 10~20대 여성 관객들로 가득 찼다. 내내 자신들을 아저씨로 부른 다른 멤버들보다 두 살 어린 나오키는 오빠를 자처하며 너스레를 떨었지만 텐피트 멤버들은 "아이들이 된 것 같았다"며 웃었다.

'더 퍼스트 슬램덩크'에서 송태섭의 형이자 농구 유망주였던 송준섭은 동생과 일대일 대결에서 그가 마침내 힘겹게 자신을 돌파해내자 "그 느낌 잊지 마"라고 말한다. 텐피트의 '제제로감', 즉 '제어받지 못한 것'을 노래한다. 오감을 뛰어넘는 그 무엇이다. 우리 삶에 절실히 필요한 그 무엇이기도 하다.

그렇게 텐피트는 애니메이션과 삶 사이를 오가며 삶을 연주하는 퍼포머다. 라이브 이벤트 이튿날인 6일 서울 용산에서 만난 텐피트 멤버들은 "우리는 모두 포인트 가드"라고 입을 모았다. 계속 경기가 이어지는 삶 속에서 긴 호흡을 가지고 안정적인 볼 배급을 할 수 있는 이들이다. '아리랑'을 깜짝 들려주는 등 한국 팬들과 팀워크도 중요하게 여기는 진실함도 갖추고 있다.

다음은 인터뷰 내내 위트와 정겨움이 넘쳐던 텐피트 멤버들과 나눈 일문일담.

**-극장 라이브 이벤트는 마치 케이팝 스타를 방불케 했어요. 라이브 전에 식사를 못했다고 하셨는데 행사가 끝난 이후 밥은 잘 챙겨드셨나요?**

"많은 여성 분들의 합성을 들으면서 마치 저희가 아이돌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저씨들로서는 굉장히 영광이었죠. 하하. 행사가 끝나고 닭한마리, 불고기, 냉면 등을 많이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난 뒤 편의점에 가서도 많이 사먹었어요."(타쿠마)

**-나오키 씨는 연주할 때 발차기, 다리 찢기 등 쇼맨십이 좋았어요. 제가 본 베이스 연주자 중 퍼포먼스가 가장 화려한 속에 속했습니다.**

"그런 동작들이 제 기분을 고양시켜줍니다. 제가 즐겁고 있다는 걸 운명으로 표현하는 거죠."(나오키)

"나오키 씨는 태권도를 하면 잘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희보다 두 살 어린데 스스로를 계속 오빠라고 자처하는 게 대단하기도 해요. 하하."(타쿠마)

**-타쿠마 씨는 한국어를 너무 잘해요. 특히 '아리랑'을 부르셨을 때 발음이 너무 정확했어요. '아리랑'을 고등학교 때 부른 적이 있더라고요.**

"제가 30년 전 고등학교를 다닐 때 수학여행으로 서울에 왔어요. 그 때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가 서울의 영신고등학교와 교류가 있었거든요. 영신고교 친구들에게 들려주려고 저희 반 전체 학생들이 '아리랑'을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제제로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라이브 행사 때 그것만으로는 안 될 거 같아서 '오빠 아저씨 콘트'를 넣었고 '아리랑'을 부르기로 했어요. 무엇보다 한국 팬들과 즐겁게 교류를 하고 싶었죠. '아리랑'은 라이브 직전에 부르기로 한 건데 예전에 불렀던



일본의 더 퍼스트 슬램덩크 OST 밴드 텐피트가 최근 서울 용산구 노보텔엠베서더서울용산에서 뉴스와 인터뷰를 마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코드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타쿠마 오리지널 록 편성' 버전으로 했습니다. 발음이 많이 걱정됐어요."(타쿠마)

**-한국을 찾으신 게 약 15년 만이시라고요? 한국의 펑크 밴드 '김엑스' 이용원 씨와 인연이 닿아서 방문하셨던 거라고요? 찾아보니까 2003년 삿포로에서 열린 록 페스티벌 때 함께 공연하기도 하셨더라고요.**

"이전에 서울에 여행 온 거였어요. 용원 씨가 그 때 고깃집에 데려가서 맛있는 고기도 사주셨어요. 저희가 한국을 정말 좋아하게 될 만큼 융숭한 대접을 해주셨죠. 사실 저희는 고기만 먹여주시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하하."(타쿠마)

**-'제제로감'으로 '오리콘 주간 디지털 싱글 랭킹' 1위를 차지하셨는데요.**

"처음엔 '몰래 카메라'인가 할 정도로 현실감이 없었어요. '슬램덩크' 덕분에 1위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타쿠마)

**-한국 내 '슬램덩크' 열풍은 어떻게 보세요?**

"정말 '슬램덩크'에 대해 열광을 해주셔서 놀랐어요. 저희가 라이브 이벤트 때 메이저 캐릭터나 장면을 이야기할 때보다 마이너한 정보를 말했다는 때 관객 분들이 더 크게 반응을 해주셔서 '팬팬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타쿠마)

## '복면가왕', 음주운전 호란 출연 "잘못된 판단" 사과



현성그룹 '클래지콰이' 호란이 세 번의 음주운전 후 '복면가왕'에 출연해 비판이 쏟아지자, 제작진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사과했다. MBC TV 예능물 '복면가왕'은 '9일 방송한 399회 관련 시청자들에게 불편함을 끼쳐 드린

"시청자들에게 불편함을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려"

점 깊이 사과드린다. 시청자의 엄격하고 당연한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 모두 제작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생긴 일"이라고 10일 밝혔다. "방송 후 시청자 질타를 받으며 반성했다"며 "앞으로 출연자 섭외에 있어 보다 엄격한 기준을 도입하겠다. 시청자와 현 시대 정서를 세심히 살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호란은 9일 방송한 MBC TV 예능물 복면가왕에 '핑크한 여우'로 등장했다. 3라운드까지 올라갔고, 가왕 결정전에서 '우승 트로피'에 패했다. 호란은 "1라운드에서 떨어지지만 말자"고 생각했는데, 마지막까지 남아서 감사하다. 따뜻한 응원 덕에 용기 내서 끝까지 서 있을 수 있었다"며 "곧 싱글 앨범을 발매할 예정이다. 기억해주고 많이 들어 달라. 노래하면서 행복했다. 조만간 공연으로 인사하

겠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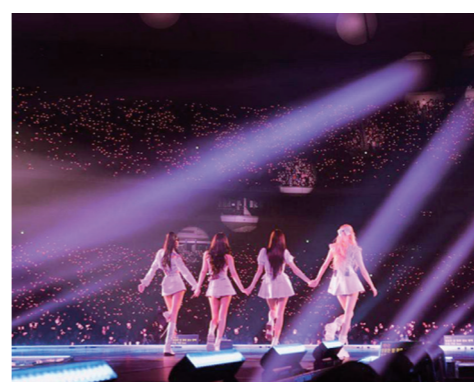
시청자 게시판에는 항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 시청자들은 "출연할 사람이 그렇게 없느냐" "음주운전 돌려 방송인가?" "범죄자 복귀를 돕는 방송을 폐지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비판했다. 이후 제작진은 네이버 TV와 MBC 유튜브 채널 등에서 호란 영상을 내렸다. 호란은 2016년 9월 음주운전 사고로 적발돼 벌금 700만원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았다. 전날 밤 술을 마시고 라디오 생방송에 가던 중 서울 성수대교 남단 3차선 도로에 정차해 있던 성동구청 청소 차량을 들이받았다.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환경미화원은 전치 2주 부상을 입었고, 호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01%였다.

경찰조사 결과 2004·2007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상태였다.

## '블랙핑크' 이틀 뜨자 도쿄돔 11만명 들썩



K팝 간판 걸그룹 '블랙핑크'가 일본 도쿄 돔에서 인기를 재확인했다.

10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블랙핑크가 지난 8·9일 도쿄돔에서 연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 재팬'에 11만명이 운집했다.

이번 콘서트는 블랙핑크가 2019년 선보인 월드투어 '인 유어 에어리어(IN YOUR AREA)' 이후 약 3년4개월 만에 도쿄에서 선보인 것이다.

특히 이전 도쿄 공연 대비 2배 이상 커진 규모로 기획, 일찌감치 현지 언론과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전에도 도쿄돔 무대에 올랐으나 당시엔 하루만 공연했다.

YG는 "티켓은 역대급 경쟁률 속 전석 매진을 기록했고 공연 전날 오픈한 시야제한석까지 금세 동이 났다"면서 "일주일 전부터 도쿄 중심가 시부야에서 열린 팝업스토어도 방문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고 전했다.

블랙핑크는 이번 콘서트에서 미국 빌보드 차트·영국 오피셜 차트의 음반 차트 정상을 휩쓴 정규 2집 '본 핑크(Born Pink)' 타이틀곡 '셧다운(Shut Down)'을 비롯해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 '뚜두뚜두(DDU-DU DDU-DU)' '러브식 걸즈(Lovesick Girls)' 등 히트곡을 들려줬다.

단체뿐 아니라 멤버별 매력도 돋보이는 솔로 무대도 선보였다.

특히 지수는 지난달 31일 발매한 첫 솔로 싱글 '미(ME)' 타이틀곡 '플(FLOWER)' 라이브 무대를 처음 선보였다.

## 애니메이션 영화 '슈퍼 마리오' 올해 美 최고 매출 찍었다

애니메이션 영화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가 미국 개봉 첫 주말 1억4600만 달러가 넘는 매출을 기록하며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다. 올해 가장 최고이자 역대 2위 기록이다.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는 7~9일(박스오피스 모조 기준) 매출 1억4640만 달러(약 1930억원)를 기록했다. 2위인 '존 워 4'(1460만 달러)보다 약 10배 많은 압도적인 수치였다.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의 개봉 첫 주말 수익은 올해 개봉 영화 중 가장 높았다. 이 영화 이전 올해 최고 기록은 '엔트맨과 와스프:퀸탐매니아'의 1억600만 달러였다. 역대 애니메이션 영화 중 두 번째로 높은 숫자이기도 했다. 1위는 인크레더블 2(2018)의 1억8270만 달러다.

이 작품은 일본 닌텐도가 1985년부터 내놓은 비디오 게임 '슈퍼 마리오' 시리즈를 영화화했다. 미국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일루미네이션이 닌텐도 그리고 유니버설과 합작했으며, 에런 호바스·마이클 제레닉이 연출했다. 영화는 뉴욕의 배관공 형제 마리오와 루이지가 배수관 고장으로 위기에 빠진 도시를 구하려다

주말 1억4640만 달러 '엔트맨' 제친 1위



가 미스터리한 초록색 파이프 안으로 빨려들어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어벤져스' 시리즈의 스타로드로 잘 알려진 배우 크리스 프랫이 마리오를, 찰리 데이이 마리오의 동생 루이지 목소리 연기를 맡았다. 안야 테일러조이는 피치 공주 목소리를 연기했다. 이와 함께 잭 블랙, 세스 로건 등 할리우드 스타들이 대거 참여했다.

지난 5일 개봉한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는 주말까지 미국 매출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3억 7760만 달러를 벌어들여 '겨울왕국2'(3억5800만 달러)를 누르고 애니메이션 영화 개봉 첫 주 매출 1위 기록도 세웠다.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의 제작비는 약 1억 달러다. 이 영화는 국내에선 오는 26일 공개된다.

## 엠넷판 '갓더비트' 나오나... '퀸덤 퍼즐'

6월 첫 공개...5월 라인업 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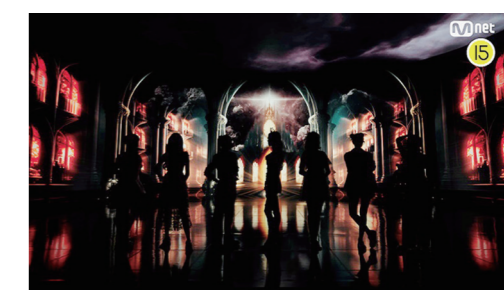
K팝 팬들에게 걸그룹의 위상을 재확인시켜 준 케이블 음악채널 엠넷의 '퀸덤' 시리즈가 새 버전으로 돌아온다.

10일 엠넷에 따르면, 퀸덤의 새 시리즈인 '퀸덤 퍼즐'이 오는 6월 첫 방송한다.

'퀸덤 퍼즐'은 기존 활동하던 걸그룹 멤버 또는 여성 아티스트들을 '퍼즐처럼 조합'해 글로벌 프로젝트 걸그룹을 완성하는 음악 예능이다. SM엔터테인먼트가 소속 간판 가수인 보아, 걸그룹 멤버들을 조합해 탄생시킨 '갓더비트' 같은 형태다.

다만 이 같은 방식에 서바이벌 형식을 더한 다.

'캠백 전쟁: 퀸덤'(2019)과 '퀸덤2'(2022)를 잇는 이번엔 그룹이 아닌 개인을 기반으로 경연을 진행한다. 참가 아티스트들은 프로젝트 걸그룹의 최종 멤버 자리를 두고 퍼포먼스 대



결을 펼친다.

앞서 시즌 1에선 '마마무', 시즌 2에선 '우주소녀'가 우승했다.

제작진은 "'퀸덤 퍼즐'은 매년 새로운 조합으로 구성된 걸그룹 퍼포먼스를 만나볼 수 있다"면서 "'퀸덤 퍼즐'에서만 볼 수 있는 무대와 스토리가 시청자를 찾아가다. 기존 걸그룹 멤버와 여성 아티스트들 또한 그간 시도해본 적 없는 콘셉트에 도전한다"고 예고했다.

라인업은 5월 중 공개한다.